금주의 법구-〈법구경〉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의 잘못을 찾기란 쉬운 일이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는 어렵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1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10월 4일)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법난기념관 · 유산센터 불사 '청사진' 나왔다

중앙종회 종책질의서 종단 불사 현황 발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주요 불사인 10.27법난기념관과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조계종 종단불사추진위원회(위원장 원행)와 사회부(부장 성공)는 11월 12일 속개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 제219회 정기회 종책질의에서 종단 불사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조계종 사회부는 중앙종회의원 우석 스님의 '10.27법난기념관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에서 40주년 행사 개요와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 현황을 제시했다.

조계종 사회부의 자료에 따르면 종단불사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계획 재수립'을 완료하고 지난 10월 28일 10.27법난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조계종이 제출한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했다.

10.27기념관, 기념 · 치유분리
봉은사 · 고양시로 부지 확정
2027년까지 건립 완료 계획

부지 난항 불교유산보존센터
양평읍 공흥리 일원 건립키로
'괘불'보존전문기관 운영 계획

변경된 사업 계획에 따르면 10.27법난기념관은 기념시설과 치유시설로 분리돼 운영된다. 기념시설은 서울 강남 삼성도 봉은사 일원에 건립된다. 연면적은 1만1944평이며, 지상1층 지하6층 규모다. 치유시설 2동은 동국대 일산병원이 인접한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777 일원에 설립된다. 연면적은 2240평 규모며,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지어진다.

기존의 토지를 활용하다보니 조계사 인근 부지를 매입해 건립하려 했던 10.27법난기념관보다 사업부지와 연면적은 모두 확대됐다. 부지 면적 확대에 따라 총 사업비는 줄지 않고 유사한 규모를 유지한다.

향후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은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기본 · 실시설계를 거치게 되며, 조계종은 오는 2024년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부는 "천년고찰 봉은사에 기념관이 건립되면 불교전통문화 자원과 함께 지역문화 관광자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면서 "치유시설이 들어설 식사동은 동국대 일산병원에 인접해 피해자 스님들의 심신안정 및 치유에 적합한 부지다. 치유시설 규모도 증가돼 피해자 스님들의 직접적인 혜택도 증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례신도시에 건립하려 했으나 하남시의 건축인허가 접수 보류로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었던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경기도 양평읍 공흥리 45-22 일원으로 부지가 확정됐다.

이는 중앙종회의원 심우 스님이 종단불사추진위원회에 현재 추진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확인됐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부지면적 1518평, 연면적 2157평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국비 133억 원, 자부담 57억 원 등 190억 원이 투입된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운영은 현재 세 가지 안이 제시된 상황이다. 1안은 전문보존복원기관이며, 2안은 아웃소싱(관리 · 감독기관), 3안은 대형불화보존복원이다. 현재는 3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위례신도시에 건립하려했던 불교문화유산센터도 대형불화(괘불)의 전문보존처리기관으로 관리 · 운영됨을 기본운영계획으로 하고 있다. 당시 작성된 〈불교문화유산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보존처리과정에 필요한 약품을 저장하는 창고부터 대형불화처리실 · 불화처리지원실 · 다목적보존처리실 · 지류/회화실까지 대형불화 보존과정에 필요한 주요 작업 공간이 배치될 예정이었다.

향후 종단불사추진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건축인허가를 완료하고, 11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종 준공은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단불사추진위원회는 "자립형 재정 운영을 위해 기금 조성 방안과 후원회를 통한 조성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문화재보호기금법을 활용해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 사업을 확대하고 사찰 소장 문화재 보존 처리도 확대 시행토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회 관련 기사 2면〉



66년만에 본래 있던 곳을 돌아온 신흥사 영산회상도와 시왕도 앞에서 신흥사 스님들이 6 · 25전몰장병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다. 국난 속에서 해외를 떠돌던 성보 앞에서 선열을 위로하고 국난극복을 발원하는 장이 열려 의미를 더했다. 사진=노덕현 기자

설악의 보물, 66년 만에 歸鄕하다

속초 신흥사 11월 9일 귀국 환영법회

한국전쟁 혼란기 속에 사라진 후 66년만에 환지본처(還至本處)한 신흥사 영산회상도와 시왕도가 11월 9일 불자들 앞에 그 위용을 드러냈다. 영산회상도를 상단에 모신 청동대불앞 특설무대서는 100여 사부대중들이 환수의 험난한 과정을 이겨낸 신심과 원력으로 불교중흥에 앞장설 것을 발원했다.

속초 신흥사(주지 지혜)는 11월 9일 통일대불전에서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국운융창을 위한 신흥사 영산회상도 · 시왕도 귀국 환영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중 스님들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됐으며, 신흥사 회주 우송 스님과 주지 지혜 스님 등 스님들과 이양수 국회의원, 김철수 속초시장 등 관계자 및 불자 100여 명이 동참했다.

6 · 25 전몰장병 천도재와 함께 진행된 이날 행사는 총 3부 행사로 1부와 3부에서는 6 · 25 전몰장병 천도재 의식이 나뉘어 펼쳐졌다. 천도재 불공과 관음시식, 소대 봉송 의식 사이에 2부 서환영법회가 진행됐다. 이는 한국전쟁 당시 지금의 신흥사가 있게 해준 호국선열을 기리고 설악산에 깃든 생명도 영산회상도 앞에서 함께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속초 신흥사=김주일 기자

진각종 제 31대 통리원장 도진 정사 선출

10일 종의회서… 현정원장 회성 · 교육원장 효명 정사

진각종 제31대 통리원장에 도진 정사(의밀심인당 주교, 사진)가 선출됐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효원 정사)는 11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4층 종의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425회 임시 종의회서 통리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도진 정사를 제31대 통리원장에 선출했다. 도진 정사의 통리원장 임기는 11월 10일부터 시작됐으며, 취임법회는 12월 초 봉행된다.

신임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진기52(1998)년 본원심인당 주교를 시작으로 관행 · 신덕심인당 주교에 이어 의밀심인당 주교를 맡고 있다. 전라교구 종무국장, 전라교구청장, 대전교구청장, 제13 · 14대 종의회 의원, 유지재단 감사, 현정원 현정위원, 진각복지재단 감사, 제15대 종의회 사무처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신임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당선 소감을 통해 "부족함이 많은 저를 선출해 주셔서 어깨가 무겁다. 법계의 인연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통리원장 직을 수행하겠다"면서 "승단의 화합과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종무행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의 권한을 축소하고 지방 교구청의 역할을 확대해 지방 포교와 교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종무행정에 힘쓰겠다"면서 "4원장과 각 교구청장 그리고 부서장들과 협치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종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의회는 제37대 현정원장과 제14대 교육원장 선거를 실시해 현정원장에 회성 정사(전 통리원장)와 교육원장에 효명 정사(포항교구청장)를 각각 선출했다. 현정원장과 교육원장의 임기는 11월 19일부터 4년이다.

신임 현정원장 회성 정사는 진기45(1991)년 신락심인당 주교를 시작으로 불정 · 능인 · 시경심인당 주교를 지냈으며 현재 서울 행원심인당 주교를 맡고 있다.

신임 교육원장 효명 정사는 진기48(1994)년 항자심인당 주교를 시작으로 화친 · 교석 · 응화 · 명륜심인당 주교를 지냈으며 현재 포항 보정심인당 주교를 맡고 있다.

선출 직후 현정원장 회성 정사는 "31대 집행부의 원활한 종무행정에 현정원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원장 효명 정사도 "새로운 걸음을 걸어갈 시간이라 생각한다. 종단 교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신성민 기자

